

가. 박철민 "부부관계 두달에 한 번?"...유경진 "그가 밖에서  
해결해도 되냐고"[애로부부]

1) 박 "불같은 연애 했지만...결혼후 스킨십, 사랑 표현 줄어"

2) 유 "내 감정이 아픈데 자꾸만 남편은 육체적 해소하려해"

(서울=뉴스 1) 김학진 기자 | 2021-02-09 11:33 송고 |

2021-02-09 14:43 최종수정

• 19

- 공유
- 축소/확대
- 인쇄

이날 방송에서 박철민은 "우리는 불같은 연애를 했다. 스킨십이나 사랑에 대한 표현도 적극적이었다"면서 "하지만 결혼식이 끝나고 '가족끼리 왜 이러냐'며 아내가 돌변했다. 신혼여행 때도 솔직히 그저 그랬던 것 같다. 신혼여행인지 친구끼리 가는 여행인지 헷갈렸을 정도였다"라고 자신만의 고민을 털어놨다.

이어 박철민은 부부 관계 횟수에 대해서도 불만을 토로했다. 그는 "관계도 두 달에 한 번 될까 말까 하는 상황이다"라며 "이런 것들이 누적되니까 마치 내가 받아야 할 빚처럼 느껴진다. 이렇게 서로 애정 표현을 소홀하게 할 거면 '결혼을 왜 했을까'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"라고 고백했다.

이에 아내 유경진은 "나는 내 감정이 너무 아픈데 자꾸만 남편은 육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해소를 하려고 한다. 그래서 이것들이 너무 짜증이 나고 매번 반복되는 상황 때문에 결국 부부 관계까지 꺼려지게 된 것"이라며 몸도 마음도 멀어지게 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.

하지만 박철민의 입장은 또 달랐다. 그는 "말로써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것조차도 내가 구걸을 해도 안 해준다"며 "'제발 말좀

해달라. 사랑해라고 해달라'라고 부탁해도 절대 안 한다"라고 토로했다. 이에 유경진은 "본인이 하면 되는 것 아니냐. 굳이 내가 하기 싫다는데 끝까지 듣겠다고 강요한다"라고 양보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.

박철민은 "사랑이라는 것이 피곤한 거구나"라고 조용히 읊조리기도 했다. 그러면서 "그게 그렇게 어려운 것인가 싶다"며 "사랑해서 결혼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한테 결혼이란 대체 뭐였지 싶다. 아이를 낳기 위해서 나와 결혼했나"라고 말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.

---

SKY 채널 A 예능 프로그램  
"매로부부" 방송화면 갈무리 ©  
뉴스 1

---

유경진은 이날 남편 박철민이 이혼 발언까지 했다면 지난날을 폭로했다.

---

유경진은 "남편이 '이런 관계가 지속되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'고 했다면 내겐 그 소리가 협박으로 들렸다"고 말했다.

---

특히 유경진은 "침지여 어느 달은 '다 그럼 밖에 나가서 해결하고 온다. 바람피워도 되겠냐'라고 물었다"며 "너무 어이가 없었다. 할 말이 있고, 안 할 말이 있는 것인데 너무 화가 나서 마음대로 하라고 했다. 이러니까 부부 관계는 계속 더 나빠질 수밖에 없다"며 부부 사이가 극한까지 치달았음을 고백했다.

---

박철민은 "두적되고 두적된 것들 때문에 마음이 피폐해졌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다"라고 이를 인정했다.

---

한편 스튜디오에서 이를 지켜보던 현영은 "부부 사이에서 말싸움의 강도가 10 까지 있다고 치면 그 마지막 10 이 이혼이다. 마지막 10 을 먼저 하는 게 이기는 거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들이 있다"라고 견해를 밝혔다.

---

또한 전문의 양재진은 **"한번 이혼을 언급하면 단순한 싸움에서도 이혼을 또 언급할 수 있다"**라며 이들의 모습을 안타까워했다.

---

---

---

khj80@news1.kr

---

“이혼한 적 있어?” 질문에 갑자기 옆드려 미친 듯이 오열한 차은  
우 (영상) | 위키트리 - <https://www.wikitree.co.kr/articles/617889>

---